

광주·전남 초·중·고생 1년새 1만6000명 줄었다

학생수 감소율 전국 평균 3%보다 크게 웃돌아

전남 초등생 3486명 줄어 감소율 3.5% 최고

올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6000여명이 줄었고, 학생 수 감소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수는 22만481명, 전남은 23만258명이다.

광주의 경우 전년도보다 3.5%(8072명)가 감소했으며 전남은 3.6%(8626명)가 줄어 양 지역을 합하면 감소 학생 수는 무려 1만6698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인 3%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4.5%), 대구(4.3%), 서울(3.9%), 울산(3.7%)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생 수는 9만9206명에서 3486명이 감소했으며, 감소율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광주 초등학생 감소율도 3%로 9만6055명에서 2892명이나 줄었다. 중학생 감소율은 광주·전남 모두 5.3%로 전국 평균 4.8%보다 높았으며, 서울·부

산·대구·울산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다.

광주의 중학생은 6만5124명에서 3442명이, 전남 중학생은 6만7888명에서 3588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등학생 감소율은 광주 2.6%, 전남은 2.2%로 전국 평균 2.8%보다는 낮았다. 광주의 경우 6만7374명에서 1738명이, 전남은 7만1790명에서 1552명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98만616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만1221명(2.8%) 감소했다. 학교급별 학생 수 감소율은 유치원은 -0.9%, 초등학교 -2.0%, 중학교 -4.8%, 고등학교 -2.8%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청소년 자살률 최고 수준

시교육청 상담인력은 태부족

문상필 시의원, 적극 대처 촉구

문상필(새정치·북구 3) 광주시의원은 28일 광주 시교육청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광주의 청소년 자살률,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 비율, 우울증을 경험해 본 학생비율이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통계와 수치에서 광주의 청소년들은 매우 위험한 정도에 올라 있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동 주관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 광주는 2주간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비율이 2012년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31.4%에서 2013년 33.5%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각종 통계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육청 전문상담인력도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적고, 단순비율로 보면 1명의 상담인력이 152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처럼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자살예방 정책은 고위험군과 사전 발생 후 사후 관리에만 집중돼 있어 사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인 자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시교육청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인 자살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인력 충원과 위기학생 선별검사 등 단계별로 적합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신세계 그룹 김해성 사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는 28일 나주시청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나주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신세계사이먼, 나주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건립

노안면 10만평... 전남도·나주시와 협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호남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김해성 신세계그룹 사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화 약 1억 달러(약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을 통해 신세계사이먼, 전남도, 나주시는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나주 노안면 10만평의 부지에 나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주 프리미엄 아울렛 대상 부지는 접근성

이 용이한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나주IC 인근에 위치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전남지역에 첫 정통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탄생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나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신세계사이먼의 전남 진출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수용하는 첫 번째 접점이 될 것”이라며 “신세계사이먼에도 영입 확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 인재 및 소상공인들을 각별히 배려해 전남 지역사회의 가족 성원으로 동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구 (주)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는 “2000년

역사를 간직한 풍요의 땅, 나주시의 맛과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쇼핑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주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품격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주시, 파주시, 부천시에서 각각 상업 중인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2007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 이래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쇼핑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입하며 명실공히 국내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트렌드를 대표하는 명소가 성장했다.

평일 약 1만5000~2만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주말 4만명 정도의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광주시, 104억 추가 확보

광주시는 28일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인센티브 예산으로 10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과 내년도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 추진도,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등 항목별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추가로 배분한 것이다.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차환경개선 지원, 문화시설 확충,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집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지특회계 인센티브 예산으로 436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시의원 결의문 채택

광주시의원들이 28일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괄적 재방방지대책과 4·16 안전재단 설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과 가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등 10개 기관단체에 제출될 예정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로

소방예산 5000억 증액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설키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소방 관련 조직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3000억~5000억원 올리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약기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원천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빌딩 512호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